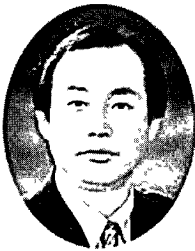


韓方處方構成原理의 科學的 解釋研究

- 상한론 처방의 통계적 분석연구 -

朴 相 泰



본 논문은 199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보건의료기술 연구사업의 연구비에 의해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한의과대학, 약학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수행하여 제출한 내용을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논문집(1997)에서 발췌하였다.

I. 서론

방제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배합하여 구성한다. 단미약(單味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진일보 발전한 것으로 한의학에서 질병치료의 중요한 방법중 하나이다.

치법(治法)과 처방에 관한 기본 지식과 임상운용의 법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천명하는 학문이 방제학이며 그 기본원칙은 군신좌사(君臣佐使)이다. 처방구성은 한의학의 원리, 치법, 한약의 약성 등을 기본으로 한다.

한의학이 경험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으로 발전하여 오면서 주로 인류가 질병에 대항하는 과정중에서 부단히 경험되는 동안 터득된 것을 실천하고 승화 발전시킨 것이다.

인류가 자연으로부터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여 오던 것은 주로 단미 즉 하나의 약물만을 사용하다가 이들 약물을 조합하여 치료효과의 상

승과 부작용의 억제 또는 방지 등을 위하여 점차 처방 즉 복합방을 사용함으로써 약물치료상 커다란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방제가 처음으로 수록된 한의서는 내경(內經)이다. 13개의 방제가 수록되어 있으며, 탕(湯), 환(丸), 산(散), 주(酒), 고(膏) 등의 제형과 병정(病情)의 경중(輕重)과 병위(病位)의 상하, 병세의 완급(緩急), 약미(藥味)의 기우(奇偶)로서 처방의 근거를 삼아 대방(大方), 소방(小方), 완방(緩方), 급방(急方), 기방(奇方), 우방(偶方), 복방(複方)등이 명칭이 사용되어 이를 칠방(七方)이라고 하였다.

동한(東漢)시대의 장중경(張仲景)은 상한론(傷寒論)과 금궤요략(金匱要略)을 저술하여 총 314개의 유효한 방제를 총괄하였다. 그 중 대다수의 방제는 오래 기간 임상경험을 거쳐 검증되어 오늘날까지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북조(北朝), 북제(北齊) 시대에는 약효에 근거하여 방제를 선(宣), 통(通), 보(補), 설(泄), 경(輕), 중(重), 활(滑), 삼(澁), 습(濕), 조(燥) 등 10가지로 나누어 십제(十劑)에 대한 학설을 창설하여 칠방(七方)으로부터 십제(十劑)로 그 종류가 증가되고 분류방법 등이 효능 측면으로 발전되면서 처방구성에 관한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당송(唐宋) 이래로 처방은 숫적으로 뿐만아니라 질적으로 향상을 가져왔으며 아울러 수많은 처방집이 출현하였다. 천금방(千金方), 외대비요(外臺秘要), 화제국방(和劑局方), 보제방(補劑方) 등의 한의서가 출간되었고 처방의 수가 61,739개에 이른다. 이후 점진적으로 처방구성에 관한 이론이 확립되어 보다 발전하게 되며 의방고(醫方考), 의방집해(醫方集解), 성방절용(成方切用)과 의방론(醫方論) 등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이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으로서 발전하였다.

처방은 질병의 실제증상에 따라 변증의 기초위에 치법에 의하여 군신좌사(君臣佐使)의 원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증상에 따라 치법이 변하고 치법에 따라 처방이 정하여지므로 처방을 구성할 때에는 원칙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가감의 변화가 필요하다. 약물을 선택하고 처방을 구성함에 있어 먼저 처방구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아울러 병증의 상태에 근거하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의 많고 적음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약물을 선택하고 처방을 구성할 때 남용해서는 안된다.

이에 한방처방구성원리를 보다 객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처방의 구성형태나 구성원칙을 파악하고자 고방(古方)으로서 수종(數種)의 약물만을 사용하여 치료하며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처방의 기본이 되는 상한론에 수록된 113처방을 치법(治法)에 따라 각각 효능군으로 구분하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약물들을 사기(四氣, 寒, 熱, 溫, 涼, 및 平)와 오미(五味, 辛, 酸, 甘, 苦, 鹹 및 기타)로 나누고 신농본초경의 삼품(三品)분류에 따라 상약(上藥), 중약(中藥) 및 하약(下藥)으로 분류하여 출현빈도 등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근본인 군신좌사(君臣佐使)를 바탕으로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구성내용의 조사

상한론에 수록된 처방의 종류는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같은가반하탕을 비롯하여 108종(중복되는 처방은 제외)의 처방이 있으며, 처방을 구성하는 한약은 83종이며 단지 1회만 출현하는 한약도 있으며, 2회이상 출현하는 한약(생약)으로는 54종이 기록되어 있다. 각 한약의 처방별 빈도를 조사하여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내면 감초(70회), 계지(33회), 대조(40회), 생강(39회), 작약(33회), 건강(24회), 부자(23회), 인삼(22회), 반하(18회), 황금(16회), 마황(14회), 대황(12회), 황련(12회), 복령(11회), 백출(10회), 행인(10회), 치자(8회), 시호(7회), 석고(7회), 지실(7회), 세신(6회), 망초

(6회), 후박(6회), 모려(5회), 향시(4회), 당귀(4회), 갈근(4회), 갱미(4회), 택사(3회), 용골(3회), 아교(3회), 지모(3회), 황백(3회), 팔루근(2회), 도인(2회), 감수(2회), 등이고 오미자, 길경, 총백, 저령, 통초, 촉슬, 오수유, 망충, 수질, 적소두, 맥문동, 적석지, 고주(식초), 팔루인, 마자인 등은 총 1회의 빈도를 보였다.

2)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을 효능군에 따라 분류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을 한의학적 치법인 한(汗), 토(吐), 화(和), 온(溫), 청(淸), 소(消), 보(補)의 팔법에 따라 개개 처방의 효능을 분석하여 해표약(解表藥), 청열약(淸熱藥), 청열이습약(淸熱利濕藥), 사하약(瀉下藥), 화해약(和解藥), 온중거한약(溫中去寒藥), 이수화음약(利水化飲藥)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108개의 처방중에서 해표약이 23종(21.3%), 청열약 15종(13.9%), 청열이습약 3종(2.8%), 사하약 9종(8.3%), 화해약 13종(12.0%), 온중거한약 27종(25.0%) 및 기타 12종(11.1%)으로 나타났으며, 처방의 효능이 주로 해표약과 온중거한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처방분석에서 해표약(解表藥)이 많은 이유는 해표약이 태양병증(太陽病證)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법이며 태양병(太陽病)은 상한(傷寒) 육경병(六經病) 중 수위를 차지하는 표양병(表陽病)으로 외감과 내상의 병인에 기인하는 질병의 시작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언급이 상한론중 가장 많으며 치료법 역시 많다. 또한 태양병 치료과정에서 오류로 질병이 심화, 악화되므로 태양병의 치료를 중요시하였고 겸병(兼病), 합병(合病), 변병(變病) 등 합병증에도 태양병의 증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는 「치병구본(治病救本)」의 원칙에 의해 해표약이 기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온중거한약은 이음병증(裏陰病證)을 치료하는 대표적 처방으로 상한(傷寒)

음병(陰病)의 시작에 해당하는 태음병의 주증상인 설사를 제거하는 근본치법이 된다.

표양병(表陽病)에서 태양병을 우선 언급하듯이 이음병(裏陰病)에서는 태양병 음병(陰病)의 심화를 방지하는 단계로서 중요시 하였다. 따라서, 상한론에 온중거한약이 많이 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한론에 수재된 108종의 각 처방에 출현하는 약물의 수는 총 533회이고 이를 각 처방에 출현하는 약물의 출현빈도는 평균 4.9종이다.

개개 효능군에서 각 처방별 약물의 출현빈도를 살펴 보면 해표약은 계지탕을 비롯하여

23개의 처방에 출현하는 약물의 수는 총 139종이고 평균 약물의 수는 6.0종, 청열약은 백호탕을 비롯한 15개의 처방에서 59종이고 그 평균은 3.9종, 청열이습약은 인진호탕을 비롯한 3개의 처방에서 10종이고 그 평균은 3.3종이었다. 또한 사하약은 대승기탕을 비롯한 9개의 처방에서 34종이고 그 평균은 3.8종, 화해약은 소시호탕을 비롯한 13개의 처방에서 90종이고 그 평균은 6.9종, 온중거한약은 계지감초탕을 비롯한 27종의 처방에서 118종이고 그 평균은 4.4종, 이수화음약은 오령산을 비롯한 6종의 처방에서 27종이고 그 평균은 4.5종으로 나타났다.

동의보감에는 「군약 1, 신약 3, 좌사약 9」을 사용하는것도 좋다고 되어 있으나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의 평균 약물의 수는 동의보감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 처방에서의 약물수보다는 다소 적었다.

이는 동한 시대 장중경의 저서 상한론에서는 비교적 약물의 종류를 적게하여 방제를 구성하여 임상에 활용하였으나 그 후 시대의 변화와 질병 양태의 변천 등으로 처방을 구성하는 이론이나 방법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약물의 종류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의 사기(四氣)에 의한 분류

한약의 약리학적 특성을 사기(四氣)와 오미(五味)로 구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寒), 열(熱), 온(溫), 량(涼)을 기(氣)라 하고 이를 사기(四氣)라 하며, 약물의 맛을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5가지 맛을 오미(五味)라고 하여 기와 미를 합하여 기미(氣味)라 한다.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을 각 효능군으로 분류하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처방을 모아 처방구성 약물의 분포를 사기(四氣) 즉 한(寒), 열(熱), 온(溫), 량(涼) 및 평(平)으로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분포도 및 출현빈도를 조사한바 그 결과는 표 1와 같다.

표 1 사기(四氣)에 의한 분류

구분 효능군	한(寒)		열(熱)		온(溫)		량(涼)		평(平)		계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1 해표약 (解表藥)	4 (16 7)	5 (3 6)	2 (8 3)	6 (4 3)	12 (50 0)	86 (61 9)	3 (12 5)	16 (11 5)	3 (12 5)	26 (18 7)	24	139
2 정열약 (淸熱藥)	7 (29 2)	25 (42 4)	-	-	7 (29 2)	12 (20 3)	5 (20 8)	8 (33 3)	5 (20 8)	14 (58 3)	24	59
3 청열이습약 (淸熱利濕藥)	5 (62 5)	7 (70 0)	-	-	-	-	2 (25 0)	2 (20 0)	1 (12 5)	1 (10 0)	8	10
4 사하약 (瀉下藥)	4 (22 2)	14 (41 2)	1 (5 6)	1 (2 9 4)	4 (22 2)	6 (17 6)	4 (22 2)	6 (17 6)	5 (27 8)	7 (20 6)	18	34
5 화해약 (和解藥)	5 (19 2)	21 (23 3)	3 (11 5)	11 (12 2)	8 (30 7)	38 (42 2)	6 (23 1)	11 (12 2)	3 (11.5)	9 (10 0)	26	90
6 온중거한약 (溫中去寒藥)	3 (9 7)	5 (4 2)	3 (9 7)	24 (20 3)	13 (41 9)	47 (39.8)	7 (5 9)	16 (13 6)	6 (19 3)	27 (22 9)	31	118
7 이수화음약 (利水化飲藥)	2 (16 7)	3 (11 1)	1 (8 3)	1 (3 7)	4 (33 3)	10 (37 0)	1 (8 3)	1 (3 7)	4 (33 3)	12 (44 4)	12	27
8 기타	10 (25 0)	11 (19 6)	2 (5 0)	2 (3 6)	12 (30 0)	21 (37 5)	6 (15 0)	6 (10 7)	8 (20 0)	14 (25 0)	40	56
계	40 (21 9)	91 (17 1)	12 (6 6)	45 (8 4)	60 (32 8)	220 (41 3)	34 (18 6)	66 (12 4)	35 (19 1)	110 (20 6)	183	533

우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약물의 종류와 출현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 108종에 출현하는 약물의 종류는 총 533종이고 이중 온(溫)성의 약물이 220건(41.3%), 량(涼)성의 약물이 66건(12.4%), 평(平)성의 약물이 10건(20.6%), 한(寒)성의 약물이 91건(17.1%), 열(熱)성의 약물이 45건(8.4%)를 점하고 있고 있어 주로 온성의 약물과 평성의 약물로 조성되었다.

한편, 개개 효능군을 비교하여 보면 해표약의 경우 온성 86건(61.9%), 평성 26건(18.7%), 량성 16건(11.5%), 열성 6건(4.3%), 한성 5건(3.6%)를 점하고 있으며 해표약의 처방에 출현하는 약물은 24종이고 이중에서 온성의 약물이 12종으로 50%를 점하고 있어 주로 온성의 약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온중거한약의 경우에는 온성 47건(39.8%), 평성 27건(22.9%), 열성 24건(20.3%), 량성 16건(13.6%), 한성 5건(4.2%)를 점하고 있으며 온중거한약의 처방에 출현하는 약물은 31종이고 이중에서 온성의 약물이 13종으로 41.9%를 점하고 있어 주로 온성의 약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화해약이나 이수화음약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청열약, 청열이습약, 사하약의 경우에는 주로 한성과 량성의 약물로 구성되었다. 한성의 약물비율이 출현하는 약물의 빈도로 보면 청열약 25건(42.4%), 청열이습약 7건(70.0%), 청열이습약 14건(41.2%)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4)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의 오미(五味)에 의한 분류

약물의 맛을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의 5가지 맛으로 나누고 이를 오미(五味)라고 하며 맛은 단순히 구강내미각세포를 통해서 느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생리적 기능을 향진시키기도 하며 감약시키기도 하고 평형을 이루는 조절기능을 갖추기도 한다. 그러므로 병적인 상태에 이를

때에는 각 약물의 약미는 오장육부의 유기적인 상관성 속에서 치유와 예방적 효과를 효율적으로 유도한다. 따라서 약물의 맛은 한가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 그만큼 작용도 다양하고 유효성을 확대시킨다.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을 각 효능군으로 분류하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처방을 모아 처방구성 약물의 분포를 오미(五味) 즉 신(辛), 산(酸), 감(甘), 고(苦), 함(鹹) 및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분포도 및 출현빈도를 조사한 바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오미(五味)에 의한 분류

구분 약효군	신(辛)		감(甘)		산(酸)		고(苦)		함(鹹)		담(澁,삼(澁))		계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1 해 표 약 (解表藥)	11 (32.4)	67 (37.0)	9 (26.4)	56 (30.9)	2 (5.9)	15 (8.3)	10 (29.4)	41 (22.7)	-	-	2 (5.9)	2 (1.1)	34	181
2 청 열 약 (淸熱藥)	6 (17.6)	12 (17.4)	11 (32.4)	18 (26.1)	3 (8.8)	6 (8.7)	14 (41.2)	33 (27.8)	-	-	-	-	34	69
3 정열이습약 (淸熱利濕藥)	1 (11.1)	1 (9.1)	1 (11.1)	1 (9.1)	-	-	7 (77.8)	9 (81.8)	-	-	-	-	9	11
4 사 하 약 (瀉下藥)	5 (18.5)	7 (15.6)	5 (18.5)	7 (15.6)	2 (7.4)	2 (4.4)	13 (48.1)	24 (53.3)	2 (7.4)	5 (11.1)	-	-	27	45
5 화 해 약 (和解藥)	10 (26.3)	32 (28.3)	8 (21.1)	31 (27.4)	4 (10.5)	4 (3.5)	12 (31.6)	40 (35.4)	1 (2.6)	2 (1.8)	3 (7.9)	4 (3.5)	38	113
6 온중거한약 (溫中去寒藥)	12 (26.1)	53 (32.7)	15 (32.6)	62 (38.3)	2 (4.3)	9 (5.6)	10 (21.7)	27 (16.7)	2 (4.4)	3 (1.9)	5 (10.9)	8 (4.9)	46	162
7 이수화음약 (利水化飲藥)	3 (18.8)	7 (18.9)	9 (56.3)	23 (62.2)	1 (6.3)	1 (2.7)	2 (12.5)	4 (10.8)	-	-	1 (6.3)	2 (5.4)	16	37
8 기 타	13 (20.6)	20 (24.1)	19 (30.1)	30 (36.1)	4 (6.3)	4 (4.8)	20 (31.7)	22 (26.5)	2 (3.2)	2 (2.4)	5 (7.9)	5 (6.0)	63	83
계	61 (22.8)	199 (28.3)	77 (28.8)	228 (32.5)	18 (6.7)	41 (45.8)	88 (33.0)	200 (28.5)	7 (2.6)	12 (1.7)	16 (6.0)	21 (3.0)	267	701

우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약물의 종류와 출현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 108종에 출현하는 한약의 종류에 의한 개개 맛의 출현빈도는 701건(동일 한약에도 2가지 이상의 맛을 가지므로 중복된 경우가 있음)으로 이중 감미(甘味) 228건(32.5%), 고미(苦味) 200건(28.5%), 신미(辛味) 199건(28.3%), 함미(鹹味) 12건(1.7%)로 나타났으며 감미가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가장 출현빈도가 높은 감초나 대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개 효능군을 비교하여 보면 해표약의 경우는 신미 67건(37.0%), 감미 56건(30.9%)를 보이고, 온중거한약의 경우는 감미 62건(38.3%), 신미 53건(32.7%)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이수화음약이나 화해약에도 비교적 감미, 신미를 갖는 약물로 조성되었었다. 반면에 청열약, 청열이습약, 사하약은 주로 고미가 각각 47.8%, 81.8% 및 53.3%로 절반 이상이 고미를 갖는 약물로 구성되었다.

5)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의 신농본초경 삼품분류에 의한 분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서문 삼품분류의 정의중 상약의 정의가 군약(軍藥), 양명(養明), 무독(無毒), 경신익기(輕身益氣), 불로연년(不老延年)이고, 하약(下藥)은 좌사약과 같이 한열 등의 사기(邪氣)를 배제하여 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중약(中藥)은 신약과 같이 허약을 보하여 병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한 본경설(本經說)을 바탕으로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의 배합비율을 살펴보았다.

이들 한약을 신농본초경에 미기재 되어 있는 4종 즉 갱미, 교이, 승마, 백분을 제외하면 신농본초경에 수재된 한약은 78종으로 이를 신농본초경의 3품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상약이 23종(30%), 중약이 33종(42%), 하약이 23종(28%)이며 신농본초경에 수록된 365종의 분포는 상약이 120종(33%), 하약

이 125종(34%)로 꽤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을 각 효능군으로 분류하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처방을 모아 신농본초경의 삼품분류법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한 바 그 분포도 및 출현빈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신농본초경의 삼품(三品, 上, 中, 下)에 의한 분류

구분 효능군	처방수	상 품		중 품		하 품		기 타		계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1 해 표 약 (解表藥)	23 (21.3%)	9	70	10	54	5	15	-	-	24	139
2 청 열 약 (淸熱藥)	15 (13.9%)	6	18	12	28	3	5	3	8	24	59
3 청열이습약 (淸熱利濕藥)	3 (2.8%)	3	3	3	5	2	2	-	-	8	10
4 사 하 약 (瀉下藥)	9 (8.3%)	5	9	4	8	9	17	-	-	18	34
5 화 해 약 (和解藥)	13 (12.0%)	10	45	11	30	5	15	-	-	26	90
6 온중거한약 (溫中去寒藥)	27 (25.0%)	17	64	8	35	3	15	3	4	31	118
7 이수화음약 (利水化飲藥)	6 (5.6%)	8	21	3	5	1	1	-	-	12	27
8 기 타	12 (11.1%)	16	26	11	15	8	10	5	5	40	56
계	108 (100%)	74	256	62	180	36	80	11	17	183	533

우선 각 효능군에 속하는 약물의 종류와 출현빈도수를 조사하였다.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108종에 출현하는 한약의 출현빈도는 533건으로 이중 상품 256건(48.0%), 중품 180건(33.8%), 하품 80건(15.0%)를 나타내어 상품에 속하는 약물이 절반을 차지하였다. 한편, 개개 효능군을 비교하여 보면 해표약의 경우는 상품 70건(50.4%), 중품 54건(38.8%), 하품15건(10.8%), 온

중거한약의 경우는 상품 64건(54.2%), 중품 35건(29.7%), 하품 15건(12.7%)를 보였고, 화해약, 이수화음약과 청열약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사하약은 하품 17건(50.0%), 상품 9건(26.5%), 중품 8건(23.5%)를 나타내어 주로 하품약으로 구성되었다.

Ⅲ. 총괄 및 고찰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군신좌사(君臣佐使)이다. 군신좌사에 관하여는 예부터 2가지 설이 있다. 그 하나는 본경설(本經說)로 「상약(上藥)이 군(君), 중약(中藥)이 신(臣), 하약(下藥)이 좌사약(佐使藥)」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문(素門)의 지진요대론(至眞要大論)】에 「병을 거(去)하게 하는 것이 군(君), 군(君)을 도우는 것이 신(臣), 신(臣)에 응(應)하는 것이 사(使)로 상·중·하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 108종을 효능군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해표약과 온중거한약이 전체 처방의 절반을 넘어 당시 장중경이 정립한 육경변증에 따라 처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을 조사한 바 사기(四氣)에 의한 분류에서는 주로 온성의 약물이 41.3%를 차지하였으며 효능군으로 분류하여보면 해표약, 온중거한약, 화해약, 이수삼습약 등은 주로 온성약물로 구성된 반면에 청열약, 청열이습약, 사하약은 한성 약물의 비율이 40%이상으로, 그 치법에 따라 약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사기(四氣)를 적절히 이용하여 조합하였다.

약물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또 하나인 오미(五味)에 따라 분석한 바 감미, 고미, 신미, 함미 등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효능군에 따라 살펴보면 해표약은 신미, 온중거한약은 감미, 이수화음약, 화해약 역시 감미, 신미를 갖는 약물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청열약, 청열이습약, 사하약은 고미를 갖는 약물로

구성되었다.

본경설(本經說)의 삼품 분류에 따라 상한론에 수재된 약물을 분류하면 상품(30%), 중품(42%), 하품(28%)이며 이는 신농본초경에 수재된 약물 365종의 상품, 중품, 하품의 비율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각각 처방에 출현하는 약물의 총 수를 삼품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상품 48%, 중품 33.8%, 하품 15.0%였으며 각 처방에는 주로 상품과 중품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경설에 의한 한방처방 구성원리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각 처방에 가미된 약물의 종류는 효능군에 따라 다르지만 그 평균이 4.9종이고, 해표약 6.0종, 청열약 3.9종, 청열이습약 3.3종, 사하약 3.8종, 화해약 6.9종, 온중거한약 4.4종, 이수화음약 4.5종을 보였으며, 청열약, 사하약 등과 같이 열성 질환에 이용하는 처방들은 그 종류가 적었으며 화해약과 같이 조화, 화해에 의하여 치료하는 처방의 경우에는 가미되는 약물의 종류가 많았다.

따라서, 처방 약제의 종류는 병의 증후와 경과에 따라 결정되며, 급성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은 대체로 품종이 적고, 만성병을 치료하는 처방은 대체로 종류가 많았다.

증후가 단순한 병에는 처방을 간단하게 하고 증후가 복잡한 병에는 처방이 복잡하며 증에 알맞게 치료 대책을 세우는 것이므로 처방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려된다. 즉 처방의 구성원칙은 「군신좌사(君臣佐四)를 바탕으로 약은 적절한 것만 고를 것이지 작용이 세고 약한 것은 관계하지 말 것이며 처방은 원칙에 맞게 할 것이지 품종을 많이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한론 개개의 처방에서 효능을 중심으로 군신좌사(君臣佐使) 등의 원리에 연관하여 조사·분석하고 그 기준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IV. 결 론

상한론에 수재된 처방 108종을 처방에 이용된 약물의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약물이 이용되고 있는 빈도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빈도와 유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각 효능군에 따라 분류한 바 처방의 구성내용과 효능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시대의 질병과도 유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약물의 성미인 사기(四氣)와 오미(五味)에 의한 분류에서도 효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처방을 구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방구성론의 하나인 본경설에 의하여 신농본초경의 삼품분류에 따라 분류한 경우 상품, 중품의 약물이 처방에 사용된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하품의 빈도는 낮았다.

(경기 경희한약방)